

## 사회치유 관점에서 본 『崔陟傳』

신 태 수\*

### 차 례

- |                                  |                                   |
|----------------------------------|-----------------------------------|
| 1. 서론                            | 4. 최척 일가의 서사를 통한 오염된 사회서사의 수정과 치유 |
| 2. 임란 후 조선의 사회상과 조위한 의 우환의식      | 5. 결론                             |
| 3. 역사적 트라우마에 오염된 사회서사로서의 예학이데올로기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척전』의 사회치유적 의의를 밝힌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오염된 사회서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차원의 치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주류적인 사회서사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예학이데올로기가 드러낸 심각한 병리현상들을 중심으로 『최척전』에서 사회적 차원의 치유가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척전』의 서사는 예학이데올로기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함으로써 현실의 사회서사를 타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임진왜란이라는 역사

\* 한남대학교 교수

적 트라우마를 다루면서도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성취하는 새로운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기존의 서사, 특히 예학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사회서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 즉, 열녀담론이라는 죽음의 서사에 대해 맹목적인 자살과 죽음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이끌어내고, 절의의 위계화로 인한 사회적 반목과 분열의 서사를 포용과 화합의 서사로 교정하며, 종법적 가족구조로의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균열과 소외에 대해 회복과 대통합의 서사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최척 일가의 재회를 통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에 희망과 회복과 통합의 길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의 사회치유를 수행한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장차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줌으로써 예방적 치유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 사회치유, 역사적 트라우마, 사회서사, 예학이데올로기, 예방적 치유, 우환의식, 조위한, 「유민탄」, 『최척전』

## 1. 서론

문학치료학에는 사회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학치료의 담론이 사회적인 것을 사상시키거나 지나치게 축소하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고통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켜, 문학치료를 개인 차원의 인식론적 전환에서만 찾음으로써 사회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 탓으로 전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고소설의 문학치료학적 연구에 대한 반성과 방향 모색을 촉구한다.<sup>1)</sup> 『최척전』에 대한

1) 강상순, 「고소설 해석의 방법과 윤리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

문학치료학적 연구 역시도 그동안 개인적 차원의 치유에 경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2)</sup> 대개 조위한이 전란 중에 겪었던 어린 딸과 부인의 죽음, 제수의 절사 등 불행한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치유로서의 창작으로 이해하면서 과거의 불행한 가족력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치료적 관점은 아니지만, 창작 당시가 과년한 두 딸을 시집보내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을 시기였음에 착안하여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딸들을 염두에 둔 부녀자 교훈의 의도를 가지고 임란 이후 조선 사회에 팽배해진 살인적 열녀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이상적 여성인물 형상화를 통해 죽지 말고 지성스런 삶의 자세로 역경을 뚫고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내었다고 보기도 한다.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의 건설과 회복에 필요한 것은 열녀가 아니라 옥영과 같은 여성임을 보여주면서 딸들을 교훈한 것<sup>3)</sup>임을 밝혔는데 이는 사회적 치유의 시각과 무관하

---

회, 2014, 28-32쪽. 문학치료학이 지닌 한계로서 사회적 시각의 결여를 지적한 다른 논의로는 김석희의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문학치료학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가 있다.

2) 『최척전』에 대한 개인적 치유 관점에서의 연구로는 나금자의 「최척전의 여주인공 옥영의 형상화를 통해 본 작자의 소망과 치유」(『인문논총』 19,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158-187쪽), 조은심의 「자살예방을 위한 최척전의 문학치료의 효용」(『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12, 387-413쪽), 신태수의 「자기치유 관점에서 본 최척전」(『한국언어문학』 85, 한국언어문학회, 2013, 285-312쪽) 등이 있다.

3) 신태수, 「여성 인물형상을 통해 본 최척전의 창작의도」,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202-214쪽. 참고로, 당시 여성들이 모두 한문에 무지하고 국문만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다. 『최척전』에서 옥영도 『시경』을 비롯한 고사를 인용하여 글을 지을 정도의 한문 문식력을 갖추었음은 물론이고 시재도 뛰어났으나 스스로 ‘평소 여인들이 시를 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현실에서도 동시대 사대부가의 여성으로서 허균의 누이 난설현은 시재가 매우 뛰어났음은 주지하는 바이고, 유몽인의 누이 같은 경우는 역사와 문장에 능통하고 박학다식했으나 그의 부친이 문자를 저술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했기 때문에 평생 한 구절의 말도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다.(柳夢寅, 『어우야담』(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 역), 돌베개, 2011, 434-436쪽) 따라서 조위한이 딸

지 않다.

또한 『최척전』 속 옥영의 서사를 趙緯韓(1567-1649) 당시 사회이데올로기로서의 열녀담론이라는 사회서사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는 것<sup>4)</sup> 역시 사회적 차원의 치유로 나아가는 단서로서의 의의가 있다. 여성의 순절과 자살은 조위환의 자기서사가 사회서사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또 이 작품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행복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sup>5)</sup>이라는 점도 이 작품을 자기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치유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사대부들은 천하를 자임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憂患意識’으로 드러났는데 우환의식이란 먼저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憂國憂民이며, 民生과 역사문화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이다.<sup>6)</sup> 다시 말해서 우환의식은 국가사회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계심을 품는 한편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라고 할 수 있다. 北宋 때 范仲淹(989-1052)의 『岳陽樓記』에 나온 “천하 사람들의 걱정을 앞서서 걱정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 후에 비로소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라는 문구는 우환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양루기』에서 범중엄이 진술한 것처럼 사대부들은 “조정에 나아가서도 걱정, 물러나서도 걱정(是進亦憂 退亦憂)”하며 세상을 염려하면서

---

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논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창작하거나 번역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는 반론은 타당성이 없다.

- 4) 장경남, 「17세기 열녀담론과 소설적 대응」,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 2011, 108-137쪽.
- 5) 강진옥, 「최척전에 나타난 고난과 구원의 문제」, 『이화어문논집』 8, 이화어문학회, 1986, 251쪽.
- 6) 장영백, 「고대중국인의 우환의식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529-558쪽.

천하를 자임하는 삶을 이상시하였다. 우환의식으로 대표되는 사대부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문학작품의 창작도 우환의식을 드러내는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했다. 조위한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 남원에 은거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민탄」 창작을 통해서 민생과 국정에 대한 강한 우환의식을 드러냈다. 부패한 정치와 가혹한 민중의 삶을 고발하고 諷諫하면서 우국우민을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다가 중국에 가서 가족들의 행복한 재회를 보여주는 『최척전』 역시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현실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우환의식과 연결된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더구나 여성의 죽음을 찬양하는 열녀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과년한 딸들을 포함한 여성과, 家를 기초로 한 사회의 위기를 걱정하며 제기한 소설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우환의식과 연결된다.<sup>7)</sup> 이렇게 『최척전』의 창작 기저에 조위한의 우환의식이 깔려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을 사회적 치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척전』은 당시 조선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sup>8)</sup>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최척전』의 사회치유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오염된 사회서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차원의 치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7) 장경남은 이 작품이 당대 열녀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았다.(장경남, 앞의 논문, 122-123쪽)

8) 역사적 트라우마란 타 집단에 의해 집단 전체가 상실을 경험하였다는 실제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후세대의 비경험자에게도 반복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로 정의할 수 있다.(김종곤,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6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60-61쪽)

## 2. 임란 후 조선의 사회상과 조위한의 우환의식

임진왜란(1592-1598)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 인구는 1/3이나 감소했다. 전쟁 중에는 인육을 먹고 가족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참상까지 빚어졌다. 생존자들마저도 1/3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거나 타향으로 옮겨야 했다. 전답이 파괴되어 농사지을 땅이 없어 국고는 비고 백성들은 굶주렸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것이다. 이에 선조(宣祖 1567-1608 재위)는 비변사가 제출한 개혁안을 받아들여 1601년 봄부터 왕조 재건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비변사에서 계를 올려 이르기를, “... 금일의 급선무는 오로지 백성과 더불어 휴식하여 조용히 백성들을 길러 중병으로부터 소생시키고 신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백성이 모두 비축한 것이 있어 조금이라도 의지할 바가 있게 된 다음에야 나라를 지키고 적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다음 것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9)</sup>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복구 정책의 기초는 ‘백성들과 더불어 휴식하면서 안정 속에 힘을 기른다’는 취지의 이른바 여민휴식(與民休息)이었다.<sup>10)</sup> 임진왜란은 공전의 대재앙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피폐해져 국운이 기울어 전후에는 국가를 재조(再造)한다는 신념으로 국가 재건에 임했다. 그리고 對후금전투(1619), 이괄의 난(1624),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 등 끊임없이 전쟁과 반란이 잇따랐기 때문에 여민휴식의 정책 기초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위한이 『최척전』을 지은 1621년까지 여민

9) 『선조실록』 선조 33년 9월 26일.

10) 임란 이후 여민휴식 정책에 관하여는 김성우의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1)과 「전쟁과 번영-17세기 조선을 바라보는 또다른 관점」(『역사비평』 107, 역사비평사, 2014)을 참조할 수 있다.

휴식을 비롯한 국가재건의 정책은 유명무실하였다. 이는 1609년에 치러진 과거시험에서 조위한이 제출한 策文과 1621년에 지은 「유민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의 책문을 살펴보면, 조위한은 1609년(광해 1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는데 당시 출제된 策題는 임진왜란의 대전란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재건하여 중흥시킬 방도를 묻는 것이었다. 오래 묵은 폐단을 혁신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방법을 물으면서 전란 뒷수습[善後]과 회복의 계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란으로 상처 입은 사회를 치유하여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위한은 책문에서 당시 조선사회의 병통과 모순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함께 조선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팔도가 텅 비고 밥 짓는 연기가 쓸쓸할 정도로 백성은 피폐해졌다”<sup>11)</sup>고 하면서 당시의 처참한 사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낸다. 그리고 ‘中興, 復讎, 求賢, 任將, 用人, 納贖, 鍊兵, 愛民, 修身, 學問’의 10가지 정책의 실상과 폐단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誠’을 제시한다.

성실로써 중흥을 이루고, 성실로써 복수를 하며, 성실로써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성실로써 장수를 임용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인재를 등용하고, 자신을 수양하며, 병사를 훈련시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성실로써 한다면, 잃어버린 국력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정책을 굳이 논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sup>12)</sup>

조위한은 당시 조선사회를 병든 사회로 진단하면서 그 병증을 치료할

11) 趙緯韓, 『玄谷集』(한국역대문집총서 1790), 한국문집편찬위원회, 1999, 26쪽. 八路丘墟烟火蕭.

12) 위의 책, 40쪽. 中興必以誠 復讎必以誠 求賢必以誠 任將必以誠 至於用人修己鍊兵愛民無不以誠則其於恢復更始之策有不足論矣.

처방으로 ‘誠’을 제시한 것이다.

또 그가 현실에 실의하고 남원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던 시기(16018-1623)에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지은 「유민탄」이라는 가사가 있다. 그 노랫말이 전하지 않아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조억(趙億)이 쓴 행장에 따르면, 당시 가혹한 부역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길거리에 즐비한 참상을 고발한 노래다. 노랫말이 슬프고 표현이 곡진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 노래가 궁중에도 흘러들어가 광해군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광해군이 노하여 사람을 시켜 나라 안팎으로 두루 색출하게 하는 바람에 조위한이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될 뻔했다가 요행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한다.<sup>13)</sup>

조위한의 「유민탄」에 감동을 받아 鄭勳(1563-1640)은 「慰流民歌」를 지었는데<sup>14)</sup> 그는 조위함과 동 시기에, 같은 지역인 남원에 우거하고 있던 재지사족이었다. 그가 1623년에 지은 <聖主中興歌>에는 광해군 시절의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어서 조위한이 「유민탄」을 지을 당시의 사회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다. 도성에는 짐승 같은 무리들만 가득하여 몸을 일으킬 수도 받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질타한다. 당시의 위정자들인 광해군과 복인정권을 여우, 살쥬이, 호랑이 같은 짐승들로 그리고 있다. 그들은 하늘의 명령[天命]도 하늘이 정한 인간의 도리 곧 군신, 상하, 준비 따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질서[天常]도 나라의 근본[邦本]도 모르는 자들이다. 임금의 궁궐을 많이 지어 무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못살게 들볶고, 전국에서 올리는 진상공물도 부족하게 여기어 벼슬을 매매하고 사사로이 진상을 받아 쌓아두기에만 급급하다. 위에 있는 임금이 이러니 아래에 있는 벼슬아치들의 품행이 단정할리 만무하

13) 『玄谷集』, 「行狀」, 漢陽趙氏玄谷公派宗會, 1989, 546쪽.

14) 朴世采, 「水南放翁鄭公家藏行蹟」, 『水南放翁遺稿』. 見趙玄谷流民歎, 卽作慰流民歌, 以悲之. 정훈의 『水南放翁遺稿』 원문 자료는 『송전어문학』 2(송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의 247-260쪽에 부록으로 실려 있음.

다. 상하가 서로 심각한 병을 지녔으니 나라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겠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15)</sup> 정훈이 목도하고 고발한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이 조위한이 「유민탄」에서 묘사한 실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洪萬宗(1643-1725)도 『旬五志』에서 “조위한의 「유민탄」이 어지러운 조정의 政令이 번다하고 가혹함과 列邑의 세금과 부역이 지독함을 서술한 것으로 가히 정협의 ‘流民圖’와 표리가 된다”<sup>16)</sup>고 평하였다. 여기서 ‘유민도’는 정협이 직접 목격한 유랑민의 처절한 상황을 화공을 시켜 그린 그림이다.<sup>17)</sup>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위한은 책문을 통해 조선 사회의 병증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제 「유민탄」에서는 무능하고 가혹한 정치로 인한 백성의 참상을 폭로하고 고발하였다. 가혹한 부역과 부패한 정치를 바로 잡아야만 백성들이 살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위한이 「유민탄」과 『최척전』을 창작한 1621년까지의 戰後 조선사회의 실제 상황은 여민휴식의 국가정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실상은 부패한 관리와 가혹한 정치에 시달려 굶어 죽고 떠도는 유민들이 길거리에 즐비한, 병든 사회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조위한은 우국우민의

15) 『水南放翁遺稿』. 여으 슬 虎狼이 城關의 ㄱ득흐니/ 하늘이 높다 혼들 몸을 곳게 니러서며/ 싸히 두터운돌 발을 편히 드될런가/ 天命을 곳게 너겨 그대도록 驕泰 홀사/ 天常을 모르거든 하늘을 고일소나/ 邦本을 호닐거든 百姓이 조출런가/ 宮闕을 만히 닳다 몇 間의 살고마는/ 無辜호 窮民을 그대도록 보첼세고/ 八方貢膳을 얼마 먹고 니블 거슬/ 벼슬 꼭라 銀되화 어디 두로 싸하시며/ 私進上바다 드려 쓰어식 다 쓰던고/ 우히 그러거든 아래히 기자홀가/ 上下交證호니 國體를 진 일런가(부분 인용)

16) 洪萬宗, 『旬五志』(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필사본). 流民歎玄谷趙緯韓所製 述昏朝政令之煩列邑徵斂之酷 可與鄭俠流民圖相表裡也.

17) 정협(鄭俠, 1041-1119)은 ‘유민도’를 당시 송나라 황제인 신종(神宗)에게 올렸는데 신종은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조서를 내렸고, 또한 왕안석(王安石)에 의해 실시된 방전(方田), 보갑(保甲), 청묘(靑苗) 등의 신법(新法)을 혁파하였다.

우환의식 아래 「유민탄」을 창작하여 사회의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전란으로 인해 유민이 되어 해외로 떠돌아야 했던 이들을 소재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최척진』 역시 조위한의 우환의식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 3. 역사적 트라우마에 오염된 사회서사로서의 예학이데올로기

임진왜란으로 조선사회는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를 드러냈다. 적이 오기도 전에 힘없는 백성들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한양을 몰래 빠져나가 도망친 임금과 신료들, 극기복례와 의리명분을 목숨처럼 여긴다면서 정작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자 힘없이 무너지며 인륜마저 저버리는 사대부들의 모습에서 집권층의 무능과 유교 이념의 허상이 폭로되었다. 사대부들의 상황이 이렇진대 헐벗고 의지할 데 없는 민중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 조정이 자신들을 왜적의 손아귀에 던져두고 도망친 것을 알자 배신감에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을 습격하여 불을 질렀다. 민란과 반역이 도처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임금의 피난길을 가로막거나 왕자들을 붙잡아 왜적에게 넘기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대단히 비참했다. 李睟光(1563-1628)은 『芝峰類說』에서 癸巳年(1593)에서 乙未年(1595) 사이 조선사회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까이는 先王朝의 癸巳·甲午年 사이에, 새로 倭寇의 침략을 겪은 다음이어서, 무명 한 필 값이 쌀 두 되었으며, 말 한 필 값이 쌀 서너 말에 지나지 않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白晝에 사람을 무절러 죽이고, 父子·夫婦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위에 전염병이 겹쳐서 길에는 죽은 사람이 서로 베개를 하였으며, 水口門 밖에는 시체가 산더

미처럼 쌓여 성보다 두어 길이나 더 높았으므로 僧徒를 불러다가 매장하는데 乙未年에 가서 겨우 마쳤다.<sup>18)</sup>

‘父子·夫婦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가 무너진 驚天動地할 실상을 가리킨다. 전란과 기근이 겹친 당시의 조선사회는 유가의 綱常倫理가 뿌리부터 흔들렸던 것이다. 李德馨(1561-1613)은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부자 형제간에,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을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sup>19)</sup>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사회의 상황은 심각했다.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것이 이에 이르러(선조 27년 5월경) 더욱 심하여 骨肉(부자 형제)이 분리되어 길 가는 사람 보듯 하였다.<sup>20)</sup>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골육인 부자형제와 부부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러 윤리의 근본이 무너짐으로써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마저 참혹하게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7세기초 조선사회는 전란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과 사회질서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사회질서의 재건은 忠·孝·烈을 근간으로 한 인륜기강 확립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란으로 혼란해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집권층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성리학적 사회윤리에 바탕을 둔 인륜기강을 새롭게 바로잡는 것이었다. 어지러운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전쟁 직후인 선조 28년(1600)부터 충절, 효자, 열녀의 행적을 뽑아 간행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대규모의 편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그 대표적인 간행물이다. 『동국신속삼

18) 李晬光, 『芝峰類說』 上(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76, 44-45쪽.

19) 『宣祖實錄』 권49, 宣祖 27年 甲午 3月 戊戌. 德馨曰 父子兄弟亦相殺食 而楊州民相聚爲盜 捉人食之 必須措置 開可生之路然後 庶不相殺 不然難禁矣.

20) 趙慶南, 『亂中雜錄』 3, 甲午 5月.(李章熙,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331쪽 재인용)

강행실도』에는 노비로부터 양반에 이르는 1725명의 수록 인물 중 586명의 임진왜란기의 인물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었는데 효자 94명 충신 54명, 열녀 436명으로 열녀 효자의 비율이 높다. 이는 임진왜란의 기억을 상기시켜 왜적 앞에서 유교정신을 발휘한 자를 선양하고 이들을 모델로 삼아 민중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란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과 울분을 지배계층으로부터 일본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집권층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1)</sup>

또한 해체된 가족의 재건은 종법적 가족질서 확립과 족보를 중심으로 한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사회의 기본단위를 ‘家’로 인식하였고, 家를 근간으로 한 종법질서를 國家와 天下로까지 확장한 사회질서체계를 구축하여 三綱五倫을 사회질서의 핵심으로 삼았다. 사림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중종대에 朴世茂(1487-1564)가 쓴 초학 교재인 『童蒙先習』(1541)은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현종대 이후 왕실에서 왕세자의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성리학적 질서의 저변 확대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한 책이다. 오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부유별 조에서 夫婦는 生民之始이며 萬福之原이라 하였고, 君子之道의 시작이 부부에게서 만들어진 다<sup>22)</sup>고 하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은 전란으로 급감한 인구와 토지로 인해 조세와 국방인력이 태부족하여 극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세와 국방인력의 증가는 인구수의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生民’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생민의 시작인 부부를 기초로 구성된 ‘家’를 재건할 필요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즉 국가 사회 재건의 실마리를 家의 회복에서 찾은 것이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는 조선 禮學의 발달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

21) 김혜진, 「임진왜란 전후복구기의 출판진흥정책」,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87쪽.

22) 『童蒙先習』. 夫婦 二姓之合 生民之始 萬福之原 … 子思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적인 시대로 규정되고 있다.<sup>23)</sup> 16세기부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토착화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예학연구도 심화되었는데 성리학이 심화되고 사림파가 정치 사회적인 주도권을 확립한 이후에는 『가례』가 급속히 보급 시행되었고 사림파가 성리학적 윤리관을 몸소 실천하고 널리 일반화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성리학적인 질서, 구체적으로는 종법적인 가족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sup>24)</sup> 그리하여 임병양란을 전후한 17세기는 또한 유교적 종법제도에 입각한 가족구조의 재편성이 가속화되면서 가족제도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기였다. 유교적 종법질서의 보편화로 여성차별이 구조화됨으로써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체제를 의미하는 극도의 남성중심적인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에게만 수절을 강요하는 불평등 구조가 자리잡았고, 상속에 있어서 여성은 배제되고 장남 위주의 단독상속으로 변했으며, 가족형태도 처계혈족을 배제한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족보에도 반영되었다.

사림파가 정치 전면에 대두하여 그들의 통치이념에 따른 사회체계의 재구조화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유교적 통치이념의 정착 노력은 점차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나갔다. 특히 임진왜란 등의 전쟁으로 인해 16세기 이래의 사회·경제 변동이 격렬해지면서 새로운 사회체계 정립을 위한 유교적 통치이념의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17세기에는 유교적 가치체계에 의해 규제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sup>25)</sup> 따라서 『최척전』이 창작될 무렵의 조선에서는 예학적이데올로기가 주류적인 사회사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

23) 이영춘, 「예학의 발달」,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196쪽.

24) 이순구,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213쪽.

25) 최재석, 「조선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6쪽.

는 관념체계로서의 예학적 담론은 조선사회의 안정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열녀담론, 절의의 위계화, 가문 건설에서의 처계혈족 소외 등 심각한 병리현상을 드러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중심으로 『최척전』에서 사회적 차원의 치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 4. 최척 일가의 서사를 통한 오염된 사회서사의 수정과 치유

##### 1) 열녀담론 비판과 조정

극도의 남성중심주의적인 유교적 가부장제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강화되었다. 『삼강행실열녀도』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로 대표되는 열녀담론은 여성에게 자발적인 복종과 죽음을 통한 열녀되기를 강제하였다. 여성들의 윤리적 정절의식을 문제삼음으로써 남성과 남성중심의 체제의 무능을 은폐 및 돌파하려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된 철저한 의식화의 결과로 여성들은 전쟁을 성폭력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였고, 남편 이외의 남성과 어떤 양태의 접촉도 죽음보다 더 두려운 치욕적 오염으로 간주하였다. 더럽힘/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즉각적인 자살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으로 인해 격렬히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왜적이 출현하기도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열녀이데올로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사회 전체에 퍼져 완고하게 자리를 굳혀갔다.<sup>26)</sup>

그러나 조위한은 죽음을 통한 열녀되기가 조선의 지배적인 사회서사

26)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292-331쪽.

로 자리잡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최척전』을 통해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작품에서 여주인공 옥영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보편적인 열녀서사에 서처럼 누차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자살을 거부하고 강인하게 삶을 헤쳐나간다.

①	결혼을 앞둔 최척이 의병에 입대하여 참전한 후 혼인 날짜를 넘기도록 돌아오지 않자 모친 심씨가 옥영을 양생에게 억지로 시집보내려고 결정할 때 옥영은 수건으로 목을 맨다.
②	옥영이 왜병 돈우에게 붙잡혀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자 여러 차례 물에 빠져 죽고자 한다.
③	최척과 재회한 후 항주에서 아들 몽선을 낳고 흥도를 머느리로 맞아 살다가 최척이 요양전투에 참전하게 되자 칼을 뽑아 목을 찌르려고 한다.
④	옥영은 요양전투에서 관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척도 전사했을 것이라 여기고는 밤낮 통곡하며 죽을 작정으로 단식한다.
⑤	몽선과 흥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향하다가 폭풍과 도적을 만나 결국 배를 빼앗겨 양식도 없이 무인도에 고립되자 옥영은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 몸을 던지려 한다.

이처럼 옥영이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데 烈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①~④가 해당한다. 그 가운데 ②에서는 왜적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겠다.

자살에 대한 옥영의 이같은 집요함은 그녀의 강한 정절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위한은 옥영의 서사에 不殺生의 상징인 장육불을 끊임없이 등장시킴으로써 순절한 여인에 열광하는 당대의 유가적 이념에 의한 정치사회적 욕망을 정면으로 비판한다.<sup>27)</sup> 그는 옥영에게 끝끝내 자살을 승인하지 않는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조선

27) 장경남, 앞의 논문, 121쪽.

사회에 팽배했던 살인적인 열녀담론을 뒤틀고 탈주선을 그리면서 지배적인 사회서사의 전복과 수정을 시도하였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하여서 그것과 다른 모습의 세계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다면 독자는 스스로 비교 체험하면서 어떤 서사가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결국 역사적 트라우마를 유발시키고 강화시켜 왔던 서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한다.<sup>28)</sup> 조위한은 자살과 죽음으로만 귀결되는 사회서사와 달리 옥영의 서사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과 경험을 제공하면서 ‘盡人事待天命’의 정신으로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과 가정을 지키며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을 주장한다.

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시아버지와 장모, 그리고 형제들이 네 나라로 흩어져 삼십여 년을 살면서 적지에서 도모하고 사지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마침내 단란하게 함께 모였으니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 이것을 어찌 인력의 소치라 하겠는가? 필시 皇天后土가 至誠에 감동하여 이런 기특한 일을 이룬 것이다. 匹婦도 誠을 다한다면 하늘도 어기지 않는 법이다. 誠을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도다!<sup>29)</sup>

옥영의 서사는 전란으로 인한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삶을 견지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쟁취한다. 옥영은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효녀이면서 현모양처이고 節婦이면서 강인한 어머니로 형상화되어 있다. 조위한은 옥영을 이와 같이 형상화하며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至誠’을 전란 극복의 대응양식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옥영의 서사를 통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의

28) 하은하,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05-107쪽.

29) 趙緯韓, <崔陟傳>. 이하 작품 인용은 민영대, 『조위한과 최척전』(아세아문화사, 1993) 부록에 실린 원문을 인용한다. 噫 父子夫妻 舅姑兄弟 分離四國 愴望三紀 經營賊所 出入死地 畢竟團圓 無不如意., 此豈人力之所致 皇天后土 必感於至誠 能致此奇特之事也 匹婦有誠 天且不違 誠之不可掩 如是夫.

30) 신태수, 「여성 인물형상을 통해 본 최척전의 창작의도」, 202쪽.

자살을 용인해서는 안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자살을 강요하는 열녀담론, 당시의 사회서사에 대한 비판과 수정으로서 사회적 치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특정 사회를 움직이는 서사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면 특정 집단 내부에 세대를 거듭해서 역사적 트라우마가 전이되고 감염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서사가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게 되고, 트라우마의 극복 역시 트라우마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심층의 원인으로서의 트라우마서사의 실체를 드러내야만이 감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sup>31)</sup> 이러한 관점에서 옥영의 서사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심층적 트라우마서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수정을 가함으로써 역사적 트라우마의 고착과 순환을 방해하고 새로운 지향의 서사를 통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병약한 사회서사가 조정을 거쳐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 2) 피로인 · 망명자 포용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조선사회는 무너진 사회 기강과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대민교화정책을 펼쳐 ‘절의’ 관념을 강화하고 내면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전쟁 중 살상당한 이들을 절의자 혹은 충절자로 표양하면서 사회 수습과 정치 운용에 적극 활용하였다. 가장 높이 현창된 이들은 忠·孝·烈的 절의를 위해 순절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현창 과정에서 절의적 행위에 대한 선별과 차등이 개입하면서 절의가 위계화의 대상이 되었다.<sup>32)</sup> 이러한 절의의 위계화로 인해 포로가 된 자들을 백

31) 하은하, 앞의 논문, 98쪽.

32) 김정신이 밝힌 임란 이후 절의의 위계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절자를 찬양하고 이를 서사화하여 절의를 표상화한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죽음을 전제로 한 절의, 즉 ‘殉節’이 특별히 강조되어 왜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절의에 가장 높은 권위와 존엄을 부여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節 혹은 毀節로 죄인시하며 불신하고 배제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위한은 『최척전』에서 피로인, 귀환자, 나아가 망명자들조차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당시 사회의 지배서사를 교정하고 있다.

첫째, 피로인들이 고국에 돌아올 뜻이 없이 조국을 배반한 채 외국에 안주한다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는 다른 서사를 통해 시각을 교정한다.

지나오는 도중에 더러 포로가 된 사람이 있었으나 그 수효가 많지 않았고 倭京에 도착한 이후에는 와서 알현하는 자가 연이어 있었으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매우 적었다. 나이 15세 이후에 포로가 된 자는 조금이나마 고향과 말을 알아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듯하였으나 매양 본국의 살기가 어떠한가를 물으며 양쪽에 다리를 걸쳐 거취를 정하지 못하였다. 간곡하게 말해주고 되풀이해서 타일러도 의혹을 푸는 사람이 적었다. 10세 이전에 포로가 된 사람은 언어와 동작이 그야말로 하나의 왜인이었다. 단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사신이 온 것을 듣고 우연히 와보는 것일 뿐이지 조국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나마 돌아가고 싶기는 하나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

서 흉노에 억류되어 갖은 고난과 회유를 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19년을 버티다가 귀환한 소무의 고사를 누락시킴으로써 절의를 위한 불굴의 서사에서 삶의 방식을 배제하고 죽음이라는 특정한 방식만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왜적에게 끌려가 살아남은 피로인들의 절의는 배제되고 나아가 피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피로인들 스스로도 불굴의 죽음과 비굴한 삶, 삶보다 가치 있는 죽음과 죽음보다 못한 삶의 극명한 대비를 내면화하였다. 그리하여 포로가 된 것은 ‘毀節’이라는 인식이 자타에게 보편화되었다. 또한 포로인 가운데서도 끝내 왜적에 동화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절의, 갖은 고생 끝에 탈출에 성공하여 귀환한 이들의 절의, 국가의 쇠퇴에 의해 돌아온 이들의 절의는 동등하게 인식되지 않고 각각 차등적으로 위계화되었다. 조선사회가 전란의 순절자와 살아남은 피로인을 차별화 하였던 시선과 더불어 포로 스스로 이러한 차별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책과 죄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살아남은 포로들에게 고국 조선은 또다른 ‘異域’이 되었다고 한다.(김정신,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에 대한 기억과 전승-‘節義’에 대한 顯彰과 排除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105-142쪽)

은 모두 품팔이로 고생하는 사람이고, 생계가 조금이라도 넉넉하여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은 돌아갈 뜻이 전혀 없었다. 혹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마음과 태도가 가증스러워 바로 풀 베듯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또 왜인들의 풍속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장 요긴하게 여기므로 조선의 포로는 태반이 왜인의 노복이 되어 있었다.<sup>33)</sup>

이 인용문은 1617년 2차 회담검쇄환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李景稷(1577-1640)이 당시 일본의 조선인 피로인에 대해 술회한 내용이다. 살아남은 피로인들을 모두 가증한 기회주의자로 낙인찍고 있다. 이 경직은 피로인들이 조국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없고 마음과 태도가 가증스러워 풀을 베듯이 죽여버리고 싶었다며 극도의 멸시와 증오를 드러낸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조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증오는 당시 조선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임진왜란을 도발한 원수인 왜적들의 나라에 머물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근래 임진년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 사람으로 중국 군대에 휩쓸려 간 사람의 이름이 전사자의 명단에 올랐는데, 혹은 자루에 실린 채 관문을 통과하여 중국에 가게 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만 한 사람도 사사로이 국경을 넘어 들어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들 또한 어찌 부모나 배우자가 없겠는가? 대개 사람들이 각기 제 몸을 아끼어서, 구사일생의 험지를 벗어나 보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 天啓 원년 여름에 기록한다.<sup>34)</sup>

이것은 『어우야담』 소재 「강남덕의 어머니」 말미에 부친 유몽인의 논

33) 李景稷, 『扶桑錄』 8월 22일 甲寅.(위의 논문, 114-115쪽 재인용)

34) 柳夢寅, 앞의 책, 43쪽.

평이다. 천계 원년은 1621년으로 조위한이 『최척전』을 지은 해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와중에 명나라 군대를 따라 중국으로 갔던 조선인들 가운데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본국의 친족들을 버린 채 다만 제 몸만 아끼며 안주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조위한은 최척이 본래 명나라로 불법월경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최척의 형상화와 서사 전개에 있어서 그러한 부정적 시각은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척을 남편으로서의 절의를 지키고 물욕에서도 떠나 유유자적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옥영 역시 일본에서 돈우의 가족 같은 보살핌과 안정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 무역선 타기를 자원한다. 또한 항주에 정착하여 살다가 가족을 이끌고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밀항을 감행한다.

네 아버지가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형세로 보건대 반드시 조선으로 갔을 것이다. 어찌 무모하게 수만 리나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처자를 찾아올 리가 있겠느냐? 내 마땅히 본국으로 돌아가 찾아볼 것이다. 만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친히 창주 지경으로 가서 혼백이라도 모셔다가 선영 곁에 장사를 모셔야 할 것이다. … 선영은 또 누가 돌보겠느냐? 내외 친척들이 또한 난리통에 다 죽었을 리가 있겠느냐? 그들 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sup>35)</sup>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과 가족들을 찾기 위해, 선영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옥영 일행은 갖은 역경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한다.

이처럼 최척과 옥영은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떠밀려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안남에서 기적적으로 부부가 재회하여

35) 汝父雖生 其勢必走本國 安能冒涉數萬里程 來尋妻孥也哉 我當往求于本國 苟死矣 親往昌州境上 招得旅魂 葬于先壟之側 … 而先祖丘墓 誰復看護 內外親屬 亦豈盡歿于亂離 苟得相見 是亦一幸.

명나라에 정착해 자녀도 낳아 기르고 중국인 며느리도 얻어 살았지만 외국에 안주하지 않고 기어코 조국 땅 조선으로 돌아오고야 만다. 피붙이인 가족을 되찾고, 친척들과 다시 만나고, 선영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건 험로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의 지성스런 행위는 당시 조선사회에 만연해 있던 피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sup>36)</sup> 조위한은 최척과 옥영의 서사를 통해서 피로인에 대한 사회의 병적 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서사를 수정하고 건전한 화합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둘째,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명군 도망병과 북방지역 주민의 해외 도주 등 망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새로운 서사를 통해 교정하고 있다. 먼저 명군 도망병의 문제는 임진왜란 발발 후 명나라가 개입하면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초기부터 대두된 사안이었다. 대오를 이탈하여 조선 민간에 잠적해버리는 병사들이 늘어났는데 그들이 조선에 남기 위해 진영을 이탈하는 사연은 군율위반, 부채상환 회피, 일자리 찾기 등 다양했다. 명군이 본국으로 철수한 이후에도 이러한 도망병 가운데는 무리를 지어 도적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장을 한 채 지방관아를 습격하는 등 병란을 일으켜 조선 군대와 충돌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각 고을에서 명주나 목면 등을 징색하였기 때문에 전란의 피해에다 설상가상으로 도망병의 작폐 때문에 더욱 피해를 겪어 그 고통이 명군이 주둔할 때보다 더욱 심했다. 이렇듯 명군 도망병의 폐단은 임란 이후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다.<sup>37)</sup>

『최척전』에서 진위경도 항주에 살다가 1597년 중군하여 조선으로 왔

36) 조위한과 절친했던 권필은 왜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강항을 절의를 지키지 못한 자로 평가절하하던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흥노에 억류되어 갓은 고난과 희유를 당했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19년을 버티다가 귀환한 소무(BC140-60)에 비견되는 고상한 절개로 높이 평가하였다. 조위한이 최척 부부의 서사를 至誠스런 행위로 찬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152-156쪽.

고 순천에 주둔하던 중 군법을 어기고 도주한 인물로 명군 도망병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조선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던 도망병들과 달리 조용히 숨어지내며 침술로써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한편 북방지역 주민의 해외 도주 문제는 변방 지역민의 忠孝 등 유가적 윤리의식의 부족과 이기적 태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 집권층의 시각과는 달리, 앞서 「유민탄」에서 언급했던 당시 조선 관리들의 부패와 학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최척전』에 제시되어 있다.

나 또한 본래는 삭주의 토병이었소. 그런데 부사가 한없이 포학을 부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을 이끌고 胡地로 이주하였던 것이요. 벌써 십년 전의 일이요. 호인들은 성질이 곧고 또한 이곳에는 가혹한 정사가 없소.<sup>38)</sup>

가혹한 정치에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조국과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삭주 토병의 입을 통해 변방지역 관리의 학정을 고발함으로써 민심 이반의 원인이 집권층의 실정에 있음을 밝히며 병의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방으로 대표되는 조선사회의 안정을 위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 3) 합리적 가족 모형을 통한 사회통합

17세기는 부계적, 부권적 성격이 강한 종법질서를 축으로 하는 사대부의 가문의식에 의해 부계혈연집단이 조직화된 시기였다. 또 종법질서를 근간으로 한 가족질서와 그 연장으로서의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던 시대였다. 동족집단의 결속과 족보의 제작 등은 사대부들의 신분제 유지를 위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며,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미

38) 我亦朔州土兵也 以府使侵虐无厭 不胜其苦 擧家入胡 已經十年 胡人性直 且无苛政

암아 해이해진 신분제를 바로잡고 자기 가문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동성자의 집단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 가족형태가 부계일변적이면서 적장자 중심의 직계가족이 이상시됨에 따라 처계혈족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아들이 없이 딸만 있던 부모들은 딸의 출가 이후 노년에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최척전』도 전체적으로는 가문지향적 성격을 띠, 가문소설의 맹아적 면모를 갖춘 작품으로 평가된다. 전반부에 애정전기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연애를 통한 애정추구보다는 혼인을 통한 부부관계를 추구하는 점과 또 기자 정성의 행위를 통해 볼 때 남녀 주인공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의 애정전기소설과 다르고, 특히 후반부는 다양한 친인척관계가 등장하면서 일정 부분 가문의 형성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sup>39)</sup>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최척전』이 지향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형태가 가문소설이나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종법적 가족구조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최숙, 심씨, 진위경 등 세 집안의 사돈이 함께 모여 살며 일가를 이루는 독특한 가족형태를 제시한다. 처음에 최척은 옥영과 결혼할 때 홀로 된 장모 심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 함께 산다. 최척의 아버지 최숙과 사돈지간인 심씨가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나아가 작품 말미에 가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는 최척과 옥영 부부를 중심으로 최척의 부친 최숙, 옥영의 모친 심씨, 장남인 몽석, 차남인 몽선과 홍도 부부, 그리고 홍도의 부친 진위경 등 삼대에 걸친 부부와 내외 사돈들이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척전』의 가족유형은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현실을 고려한 조위한의 합리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9) 정규식, 「최척전의 작품 구성방식과 가문지향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회, 2013, 147쪽.

고려조와 조선 전기까지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는 외손녀, 女壻, 妻父, 妻母 등을 포함하는 兩邊的 傍系家族이 이상적 유형이었다. 반면에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들에 의해 재구조화되던 가족구조의 전형은 부계일변적 직계가족 형태였다.<sup>40)</sup> 하지만 『최척전』은 양변적 직계가족 형태를 띤다.<sup>41)</sup> 조위한은 조선사회가 당시까지 내려오던 전통적 가족관계로부터 괴리된 이질적인 가족형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처계혈족 노인의 소외 등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위한이 가족구조의 재구조화라는 사회적 지배 서사에 대해 수정을 시도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전망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 4) 주제의식을 통한 예방접종

문학작품은 작가 자신이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의 이상적 관계를 추구해 보려는 과정에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인간적 의지와 그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 파악을 통해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작가의 인간적 욕망과 그의 현실 세계와의 모순의 근원이 규명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sup>42)</sup>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화를 겪은 후 강한 우환의식을 품고 있던 작가 조위한은 『최척전』을 통해 당시 조선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면서 앞에서와 같은 사회치유의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그가 최척 일가의 서사 전체를 통틀어 일관되게 견지한 것은 至誠스런 삶이었다. 작품 말미에, 부녀인 옥영이 품은 誠조차도 하늘이 어기지 못하니 지성스럽게 살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43)</sup>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도 지성하면 감천하여 살길이 열린다고 권

40) 최재석, 앞의 논문, 29-31쪽.

41) 『최척전』의 가족형태를 비롯한 가족제도 유형에 관한 비교분석은 신태수의 「최척전의 근대적 성향 연구」(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5-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42) 金采洙, 『동아시아문학 기본구도 I』, 박이정, 1995. 93-94쪽.

계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강조는 앞서 소개한 조위한의 책문의 요지와 일관되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中庸』에서 誠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므로 군자는 성하는 것을 귀중히 여기며, 지극한 성은 쉽고 쉽다 없은즉 장구하고 장구한즉 징험이 있다고 했다.<sup>44)</sup> 또한 지성의 도는 앞일을 미리 알게 되어 지성은 마치 신과 같다고 했다.<sup>45)</sup> 조위한은 최척, 옥영, 홍도 등이 지성을 견지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기적적으로 만나 團圓하는 징험이 나타난 것이고, 옥영에게 장육불이 나타나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게 한 것 등이 바로 지성의 결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회 회복의 방안도,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상황에도 지성스런 삶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위한은 『최척전』을 통해서 사회의 건강성 회복은 사람마다 지성스런 삶을 견지할 때 이루어짐을 설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성스런 최척 일가의 서사를 통해서 위기 재발 시 대처요령을 추체험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도록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사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겪은 경험의 한계, 자신의 서사, 자신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지 못하며, 따라서 독서는 독자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행위요 삶을 위한 연습이라고 문학치료학은 이해한다. 문학 중에서도 픽션은 미래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예방접종의 작용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얻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간주한다. 즉 미래를 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43) 匹婦有誠 天且不違 誠之不可掩如是夫.

44) 『中庸』. 誠者 物之終始 不誠不物 是故 君子 誠之爲貴 … 故 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25-26章)

45) 『中庸』. 至誠之道 可以前知 … 禍福將至 善必先知之 不善必先知之 故 至誠如神 (25章)

인생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예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대응책을 기억해내어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현재의 공포를 대면하고 미래에 대한 면역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sup>46)</sup>

최척 일가의 서사는 전란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인간생존의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접종의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옥영의 서사는 자살과 죽음으로만 귀결되는 사회서사와 달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습과 경험을 제공한다. 여성으로 하여금 무조건 자살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모습의 세계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에게 포로가 되는 극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색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도록 자극한다.

조위한이 존경했던 趙憲(1544-1592)은 임진년에 난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매일 밤 남녀들에게 이고지고 산을 오르내리게 하면서 힘들게 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 조위한은 제수가 순절한 사건에서와 같이 여성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절박한 문제임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척전』 창작 당시 그에게는 과년한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상황에서 딸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위한은 왜적에게 잡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요령을 옥영의 서사를 통해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학을 통한 예방접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척전』은 적에게 포로가 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접종적 작용이라는 치유적 의미를 지닌다. 우환의식은 국가사회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이므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한 예방접종에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46) 조셉 골드, 『비블리오테라피』(이종인 역), 북키앙, 2003, 98-104쪽.

## 5. 결론

『최척전』의 서사는 예학이데올로기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함으로써 현실의 사회서사를 타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면서도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희망을 성취하는 새로운 서사를 전개함으로써 기존의 서사, 특히 예학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사회서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 즉, 열녀담론이라는 죽음의 서사에 대해 맹목적인 자살과 죽음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이끌어내고, 절의의 위계화로 인한 사회적 반목과 분열의 서사를 포용과 화합의 서사로 교정하며, 중법적 가족구조로의 재편으로 인한 사회적 균열과 소외에 대해 회복과 대통합의 서사를 통해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전란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최척 일가가 대단원의 결함을 이루는 『최척전』의 문학치료학적 의미는 사회의 근간을 ‘家’로 인식하던 전통과 작가 조위한의 우환의식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최척 일가의 서사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조위한의 사회적 치유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최척 일가의 재회를 통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에 희망과 회복과 통합의 길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의 사회치유를 수행한다. 또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서 장차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줌으로써 예방적 치유도 수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 강상순, 「고소설 해석의 방법과 윤리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5-36쪽.
- 강진옥, 「최척전에 나타난 고난과 구원의 문제」, 『이화어문논집』 8, 이화어문학회, 1986, 225-252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석희,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학연구』 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7-30쪽.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김성우, 「전쟁과 번영-17세기 조선을 바라보는 또다른 관점」, 『역사비평』 107, 역사비평사, 2014, 142-167쪽.
- 김정신,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에 대한 기억과 전승-‘節義’에 대한 顯彰과 排除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105-142쪽.
- 김종곤,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6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37-64쪽.
- 김채수, 『동아시아문학 기본구도 I』, 박이정, 1995.
- 김혜진, 「임진왜란 전후복구기의 출판진흥정책」,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나금자, 「최척전의 여주인공 옥영의 형상화를 통해 본 작자의 소망과 치유」, 『인문논총』 19,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0, 158-187쪽.
- 신태수, 「최척전의 근대적 성향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태수, 「자기치유 관점에서 본 최척전」, 『한국언어문학』 85, 한국언어문학회, 2013, 285-312쪽.
- 신태수, 「여성 인물형상을 통해 본 최척전의 창작의도」, 『어문연구』 77,

- 어문연구학회, 2013, 197-217쪽.
- 柳夢寅, 『어우야담』(신익철·이형대·조윤희·노영미 역), 돌베개, 2011.
- 李晬光, 『芝峰類說』(남만성 역), 을유문화사, 1976.
- 李章熙, 『임진왜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 장경남, 「17세기 열녀담론과 소설적 대응」,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학사학회, 2011, 108-137쪽.
- 장영백, 「고대중국인의 우환의식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2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529-558쪽.
- 정규식, 「최척전의 작품 구성방식과 가문지향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65, 한국문학회, 2013, 121-152쪽.
- 鄭勳, 『水南放翁遺稿』(『송전어문학』 2, 송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 부록 원문).
- 조셉 골드, 『비블리오테라피』(이종인 역), 북키앙, 2003.
- 조은심, 「자살예방을 위한 최척전의 문학치료의 효용」, 『겨레어문학』 49, 겨레어문학회, 2012, 387-413쪽.
- 趙緯韓, <崔陟傳>(민영대, 『조위한과 최척전』, 아세아문화사, 1993, 부록 원문).
- 趙緯韓, 『玄谷集』(한국역대문집총서 1790), 한국문집편찬위원회, 1999.
- 趙緯韓, 『玄谷集』, 漢陽趙氏玄谷公派宗會, 1989.
- 최재석, 「조선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52쪽.
- 하은하, 「역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학치료연구 현황」,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89-113쪽.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 洪萬宗, 『旬五志』(국립중앙도서관 장서 필사본).

<Abstract>

## A Study on the Choi-cheok Jeon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healing

Shin, Tae-soo

This paper reviews the meaning of Choi-cheok Je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healing. The pattern of social healing of historical trauma and the social narrative was reviewed. After the invasion of Korea by the Japanese from 1592 to 1598, the ideology of Yehak that had a hold over mainstream society during the Josun Dynasty era started to show serious symptoms of being having issues. This paper looks at how social healing is being carried out in those terms. The following has been identified.

The narrative in Choi-cheok Jeon serves as a mirror that reflects the Yehak ideology so that the social narrative can b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While it addresses Japanese invasions, the narrative evolves in a way that achieves ultimate hope so that overcoming the social narrative that has been contaminated by the Yehak ideology can be possible. That is, reflection and criticism about reckless suicides or deaths under the discourse of virtuous woman are offered and honor is structured in hierarchy so that it is changed into a narrative of acceptance and harmony. Social disharmony and isolation that has been caused by rigid family structure are reviewed to offer a new alternative for a social safety net.

In conclusion, this piece reunites the family of Choi-cheok to offer hope and a way for social cohesion, as well a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healing. As the threat of war always exists in reality, the piece offers ways of coping in the future, thus serving another role in preventing healing.

Key Words : social healing, historical trauma, social narrative, Yehak ideology, preventive healing, consciousness of worries, Jo Wei-han, Yumintan, Choicheokjeon

■ 논문접수 : 2015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4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